



# 희망젖소 나눔운동 실천, 경기 김포 시암목장

등록우 15두 분양, 송아지 10두는 무상기증  
FMD피해 낙농가 조속한 재기 위해 내놓아

이 희 영  
축산신문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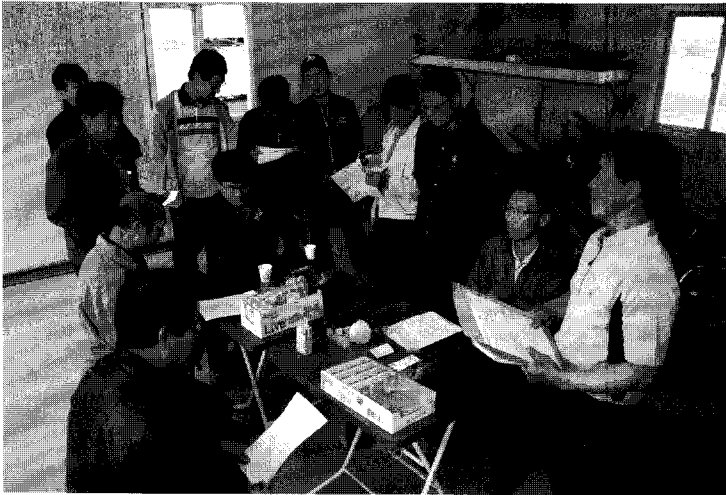
FMD피해 낙농가들의 재기를 위해 전 낙농업계가 나서 젖소나눔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나눔운동에 동참한 낙농가 중에는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농가들도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에 자리잡고 있는 시암목장 김익환, 홍명순씨 부부는 이 같은 나눔을 몸소 실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달 20일 시암목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목장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15마리의 혈통등록우와 10마리의 송아지를 FMD피해를 입은 12농가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날이었다. 이중 송아지 10마리는 인근 지역의 후계낙농인들과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목장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특히 15마리의 혈통등록우들은 전국에서도 손꼽히게 개량된 개체들로 경산우 중에는 연간 1만kg가 넘는 개체도 포함됐으며 초임우나 수정단계에 있는 개체들 역시 우수한 개체들이었다.

더욱이 시암목장은 목장 HACCP인증을 비롯해 농협으로부터 베스트오브베스트목장, 낙농우수경영모델, 우수경관모델, 으뜸낙농가상 경력 등 전





국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목장이다.

시암목장에서 내놓은 젓소들은 초임만삭 5두를 비롯해 경산우 2두, 수정단계 6두, 육성우 2두를 분양하고 중송아지 7두와 어린송아지 3두는 무상기증했다.

시암목장의 젓소나눔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최근 모든

초과원유에 대해 정상유대로 지급하고 있어 젓소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한 목장에서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무려 15마리나 시집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텐데 이를 품소 실천했다는 것은 희망젓소 나눔운동의 본보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익환, 홍명순 씨 부부는 “목장을 운영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젓소를 도태시킬 경우가 있는데 한 마리를 도태시켜도 마음이 아픈데 FMD로 목장의 젓소를 못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라며 “젓소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같이 생활하던 젓소들을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며 애지중지 키우던 젓소들인 만큼 다른 목장에 가서도 잘 살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씨 부부의 마음은 분양받는 농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

이날 김씨 부부는 분양하는 개체마다 수정일과 정액, 분만예정일은 물론 혈통과 특징까지 세심하게 기록한 개체 기록을 분양받는 농가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며 잘 키워주기를 당부했다.

또 김씨부부는 분양받는 목장들에게 “목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개체를 분양하지 못한 것이 더 미안하다”며 “송아지의 경우 모든 목장에 동일한 개체를 주고 싶지만 월령 차이가 많이 난다.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섭섭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며 오히려 FMD로부터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더욱 미안해 했다.

시암목장의 이 같은 실천에 대해 분양받는 목장들은 “FMD로 살처분 된 이후 목장을 어떻게 재기할지 막막했는데 젓소나눔운동 등이 피해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암목장의 경우 한 목장에서 많은 젓소를 내놓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분양받은 젓소를 잘 키워 하루빨리 목장을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암목장이 이처럼 FMD피해에서 벗어나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만 FMD가 한창 발병하던 시기에는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지난해 12월 목장 인근 1km까지 FMD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시암목장에도 FMD가 발생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지만 목장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방역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 안동에서 FMD가 발생하자 목장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며 외부와 차단하는데 주력했으며 일손이 부족할 것을 염려해 호주 유학 중인 막내아들까지 귀국시켜 FMD를 대비했다. 뿐만 아니라 목장 외부로 나가지 못하자 시장조차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반찬거리가 없어 쌀과 김치로만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다. 더욱이 목장 바로 옆을 지나는 도로에는 30분 간격으로 노선버스가 지나는 등 차단방역에 매우 어려웠지만 매일 매일 소독하는 목장 식구들을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노선버스는 물론 일반차량도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도움도 FMD로부터 피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이처럼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FMD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며 아무 조건없이 나눔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 김씨 부부의 말이다. 또 김씨 부부는 시암목장이 FMD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축협과 시군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100여일이 넘게 흑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철주야 FMD방역에 힘써준 축협 직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두번 다시 이러한 재난이 없도록 축산인의 명예를 걸고 더욱더 철저히 방역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